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김동영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대수도론'에 반발, 비수도권이 연합전선을...

설협의체인 '수도권협의회'를 구성키로 하는 등 '대수도론'을 구체화하고 있다.

'대수도론' 폐기하라

수도권 과밀화는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규제완화 노린 술수?

'대수도론'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문수 경기지사 후보가 제기했다.

이전했던 기업이 수도권으로 유턴할 가능성

이전했던 기업이 수도권으로 유턴할 가능성이 높고 기업은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균형발전에 대해 보다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지역간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수도론'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수도권은 이미 포화상태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정도로 심각하다.

수도권은 이미 포화상태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정도로 심각하다.

수도권은 이미 포화상태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정도로 심각하다.

수도권은 이미 포화상태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정도로 심각하다.

수도권은 이미 포화상태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정도로 심각하다.

수도권은 이미 포화상태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정도로 심각하다.

수도권은 이미 포화상태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정도로 심각하다.

수도권은 이미 포화상태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정도로 심각하다.

수도권은 이미 포화상태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정도로 심각하다.

수도권은 이미 포화상태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정도로 심각하다.

수도권은 이미 포화상태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정도로 심각하다.

수도권은 이미 포화상태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정도로 심각하다.

수도권은 이미 포화상태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정도로 심각하다.

수도권은 이미 포화상태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정도로 심각하다.

수도권은 이미 포화상태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정도로 심각하다.

가능 60%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경제·사회·문화의 중추기능 80%가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 과밀화는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는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는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는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는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는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는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는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는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는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는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는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는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는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는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는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는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는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는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는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는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는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는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는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가. 정부는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정책기조를 보다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비수도권 상생을

한나라당도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수도론'을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과 호남을 제외한 비수도권 광역단체장이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다.

수도권 과밀화는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는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는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는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는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는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는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는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는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는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는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는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는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는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는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는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는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는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는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는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는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는 집적의 편익을 넘어 주택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시설

北 2차 핵실험한다는데 국론은 사분오열

북핵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북한 외무성은 17일 공식 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을 "미국의 각본에 따른 선전포고"라고 비난하고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며 해당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북한 외무성은 17일 공식 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을 "미국의 각본에 따른 선전포고"라고 비난하고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며 해당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북한 외무성은 17일 공식 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을 "미국의 각본에 따른 선전포고"라고 비난하고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며 해당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북한 외무성은 17일 공식 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을 "미국의 각본에 따른 선전포고"라고 비난하고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며 해당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북한 외무성은 17일 공식 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을 "미국의 각본에 따른 선전포고"라고 비난하고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며 해당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북한 외무성은 17일 공식 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을 "미국의 각본에 따른 선전포고"라고 비난하고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며 해당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북한 외무성은 17일 공식 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을 "미국의 각본에 따른 선전포고"라고 비난하고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며 해당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북한 외무성은 17일 공식 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을 "미국의 각본에 따른 선전포고"라고 비난하고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며 해당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북한 외무성은 17일 공식 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을 "미국의 각본에 따른 선전포고"라고 비난하고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며 해당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북한 외무성은 17일 공식 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을 "미국의 각본에 따른 선전포고"라고 비난하고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며 해당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북한 외무성은 17일 공식 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을 "미국의 각본에 따른 선전포고"라고 비난하고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며 해당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북한 외무성은 17일 공식 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을 "미국의 각본에 따른 선전포고"라고 비난하고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며 해당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북한 외무성은 17일 공식 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을 "미국의 각본에 따른 선전포고"라고 비난하고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며 해당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북한 외무성은 17일 공식 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을 "미국의 각본에 따른 선전포고"라고 비난하고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며 해당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북한 외무성은 17일 공식 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을 "미국의 각본에 따른 선전포고"라고 비난하고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며 해당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북한 외무성은 17일 공식 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을 "미국의 각본에 따른 선전포고"라고 비난하고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며 해당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북한 외무성은 17일 공식 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을 "미국의 각본에 따른 선전포고"라고 비난하고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며 해당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북한 외무성은 17일 공식 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을 "미국의 각본에 따른 선전포고"라고 비난하고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며 해당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북한 외무성은 17일 공식 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을 "미국의 각본에 따른 선전포고"라고 비난하고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며 해당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북한 외무성은 17일 공식 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을 "미국의 각본에 따른 선전포고"라고 비난하고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며 해당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북한 외무성은 17일 공식 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을 "미국의 각본에 따른 선전포고"라고 비난하고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며 해당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북한 외무성은 17일 공식 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을 "미국의 각본에 따른 선전포고"라고 비난하고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며 해당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북한 외무성은 17일 공식 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을 "미국의 각본에 따른 선전포고"라고 비난하고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며 해당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북한 외무성은 17일 공식 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을 "미국의 각본에 따른 선전포고"라고 비난하고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며 해당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북한 외무성은 17일 공식 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을 "미국의 각본에 따른 선전포고"라고 비난하고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며 해당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북한 외무성은 17일 공식 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을 "미국의 각본에 따른 선전포고"라고 비난하고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며 해당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북한 외무성은 17일 공식 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을 "미국의 각본에 따른 선전포고"라고 비난하고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며 해당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 각축장이 된 듯하다. 남북경협과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협약(PSI), 전작권 전환문제, 핵우산 등 외교·안보현안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사안들이다.

정부는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북한이 2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면 한반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다.

정부는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북한이 2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면 한반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다.

정부는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북한이 2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면 한반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다.

정부는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북한이 2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면 한반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다.

정부는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북한이 2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면 한반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다.

정부는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북한이 2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면 한반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다.

정부는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북한이 2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면 한반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다.

정부는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북한이 2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면 한반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다.

정부는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북한이 2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면 한반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다.

정부는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북한이 2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면 한반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다.

정부는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북한이 2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면 한반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다.

정부는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북한이 2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면 한반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다.

정부는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북한이 2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면 한반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다.

정부는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북한이 2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면 한반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다.

'충장로 축제' 개막...도심 활성화 계기로

광주 충장로 축제가 17일 화려한 전야제를 시작으로 6일간의 막을 올렸다.

올 축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연과 놀이가 펼쳐지는 등 볼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해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충장로 축제는 지난 90년대부터 신도심의 급속한 팽창으로 공동화된 광주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3년 전부터 시작된 지역축제다.

충장로 축제는 지난 90년대부터 신도심의 급속한 팽창으로 공동화된 광주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3년 전부터 시작된 지역축제다.

충장로 축제는 지난 90년대부터 신도심의 급속한 팽창으로 공동화된 광주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3년 전부터 시작된 지역축제다.

충장로 축제는 지난 90년대부터 신도심의 급속한 팽창으로 공동화된 광주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3년 전부터 시작된 지역축제다.

충장로 축제는 지난 90년대부터 신도심의 급속한 팽창으로 공동화된 광주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3년 전부터 시작된 지역축제다.

충장로 축제는 지난 90년대부터 신도심의 급속한 팽창으로 공동화된 광주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3년 전부터 시작된 지역축제다.

충장로 축제는 지난 90년대부터 신도심의 급속한 팽창으로 공동화된 광주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3년 전부터 시작된 지역축제다.

충장로 축제는 지난 90년대부터 신도심의 급속한 팽창으로 공동화된 광주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3년 전부터 시작된 지역축제다.

충장로 축제는 지난 90년대부터 신도심의 급속한 팽창으로 공동화된 광주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3년 전부터 시작된 지역축제다.

작 진행에는 소홀해 축제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돈만 낭비하는 지역축제들이 많이 봐 왔기 때문이다.

충장로 축제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도심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

충장로 축제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도심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

충장로 축제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도심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

충장로 축제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도심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

충장로 축제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도심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

충장로 축제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도심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

충장로 축제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도심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

충장로 축제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도심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

충장로 축제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도심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

충장로 축제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도심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

기고

이광운

우리나라 현행 대학 입시는 수능, 내신, 논술이 그 핵심을 이룬다.

이에 따라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대학들이 2008학년도부터는 논술 비중을 높여겠다고 최근 발표하였고, 이후 학교는 물론 사교육시장에 온통 논술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지금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으로 짜여졌던 대도시의 학원가들이 논술로 그 무게 중심을 옮겨가고 있으며 여기에 일부 언론들이 대학입시에 성공하기 위하여는 일찍부터 논술을 가르쳐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학에서 학원교육을 통해서 모범답안을 달달 외워 쓰는 답안보다 주관이 뚜렷하고 논리전개 가 명쾌한 참신한 글이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는 보도였다.

좋은 논술을 쓰기 위해서는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써보도록 지도해야 한다.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수년전부터 많이 읽고, 생각하고, 써보는 교육을 해왔다.

매년 100개교씩 선정하여 학교 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학교 예산의 4% 이상을 학교 도서 구입에 투자하였으며, "좋은 책 60권 읽기 운동"을 역점사업으로 정하여 독서지도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교실수업개선을 또 하나의 역

점 사업으로 내세워 논리력, 비판력,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수업을 해왔다. 그 외에도 교사들의 논술 지도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한국언론재단과 협력하여 NIE(신문 활용 수업)를 통한 논술지도 능력에 대한 연수를 2년째 실시했으며, 또 대학과 협력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600여명의 고등학교 교사들을 논술지도 핵심교사로 양성하였다.

또 인터넷교육방송 및 사이버 가정학습을 통해 논술 자료를 탑재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순천, 목포 영재교육원에서 우수학생들의 독서, 논술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학교와 교육청은 대학입시를 위한 논술지도에서 학부모들이 사교육기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전라남도 교육청 교육국장〉

대입 논술지도, 학교에 맡겨라

야 한다는 분위기를 부추기는 바람에 학부모들로부터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

더군다나 대도시의 학부모들은 국, 영,수 대신 논,영,수라하여 어려서부터 논술과외를 한다는 일부 보도가 농산어촌이 많은 우리지역의 학부모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학부모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2008학년도부터 대학입시에 논술이 강화된다하더라도 학교교육만으로 충분하도록 학교와 교육청은 이미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얼마 전 보도된 2006학년도 서울대의 정시모집 논술현황에 따르면 논술학원이 가장 많고 사교육비 비중이 큰 서울보다 지방의 학생들의 논술성적이 더 우수하였으며 지역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학에서 학원교육을 통해서 모범답안을 달달 외워 쓰는 답안보다 주관이 뚜렷하고 논리전개 가 명쾌한 참신한 글이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는 보도였다.

좋은 논술을 쓰기 위해서는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써보도록 지도해야 한다.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수년전부터 많이 읽고, 생각하고, 써보는 교육을 해왔다.

매년 100개교씩 선정하여 학교 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학교 예산의 4% 이상을 학교 도서 구입에 투자하였으며, "좋은 책 60권 읽기 운동"을 역점사업으로 정하여 독서지도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교실수업개선을 또 하나의 역

점 사업으로 내세워 논리력, 비판력,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수업을 해왔다. 그 외에도 교사들의 논술 지도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한국언론재단과 협력하여 NIE(신문 활용 수업)를 통한 논술지도 능력에 대한 연수를 2년째 실시했으며, 또 대학과 협력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600여명의 고등학교 교사들을 논술지도 핵심교사로 양성하였다.

또 인터넷교육방송 및 사이버 가정학습을 통해 논술 자료를 탑재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순천, 목포 영재교육원에서 우수학생들의 독서, 논술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학교와 교육청은 대학입시를 위한 논술지도에서 학부모들이 사교육기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전라남도 교육청 교육국장〉

비양심적인 위장취업 엄격한 관리 필요

요즘 우리 대학은 취업 학생들의 학점처리 때문에 적잖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취업을 해서 학교에 못 나오는 학생이 학교에 남아 수업을 계속 듣는 학생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따른 것이다.

전국 대학들이 다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학생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직장을 잡아 학교에 못 나오는 불가피성은 인정한다.

관하고, 자신이 원하는 자리도 아닌 회사에 취업했다며 그곳에 잠시 다니면서 성적만 챙기고 있다.